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2178호

2023년 12월 31일(나해)



오늘의 미사

“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루카 2,30)

▶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 제1독서: 집회서 3,2-6.12-14

▶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
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2독서: 콜로새서 3,12-2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22-40

▶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
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1월 봉성체 안내

1월 봉성체는 1월 18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12월 31일(일)	오후 4시
01월 07일(일)	오후 4시
01월 14일(일)	오후 4시
01월 21일(일)	미사 없음
01월 28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공지사항

1월 2/3일(화/수) 평일 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실도 쉬오니,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샬린 바울라 자매님

제대꽃: 박에릭 즈카리아

복사단, 전례부: 구형수 안토니오 형제님

식품: 고태식품

한글학교, 자모회: 이명노 사목회장님

- 성당에 도네이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12월 31(일)	4복음서 강의 제4강, 2부
01월 07(일)	4복음서 강의 제5강, 1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가정 축일 미사 안내

12월 30일(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후 4시 오후 7시
12월 31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peter and paul)
1월 1일(월) (신년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10시 30분

■ 故 곽윤순 루치아 자매님의 장례미사를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유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떡국떡 판매 안내

12월 30-31일 떡국 떡을 판매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익금 전액은 본당에 도네이션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모회 과일, 커피 판매 \$650 수익금 전액을 성당에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성모회 김치판매 수익금 \$1,500을 성당에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성탄미사에 점심을 준비해주신 성모회장님과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호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광고문의
사무실 : 808-422-101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알아드립니다

1) 꾸리아 월례회의 모임 안내

일시: 12월 3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2)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1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2차헌금 안내 Ohana in Christ(1월/7-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12월23/24):\$10,478.5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3,953	\$4,095	\$2,430.50

12/24-25(크리스마스 대축일)

헌금:5,256, 교무금:630 구유예물:2,105

특별헌금:1,269

※ 성당차(밴)를 판매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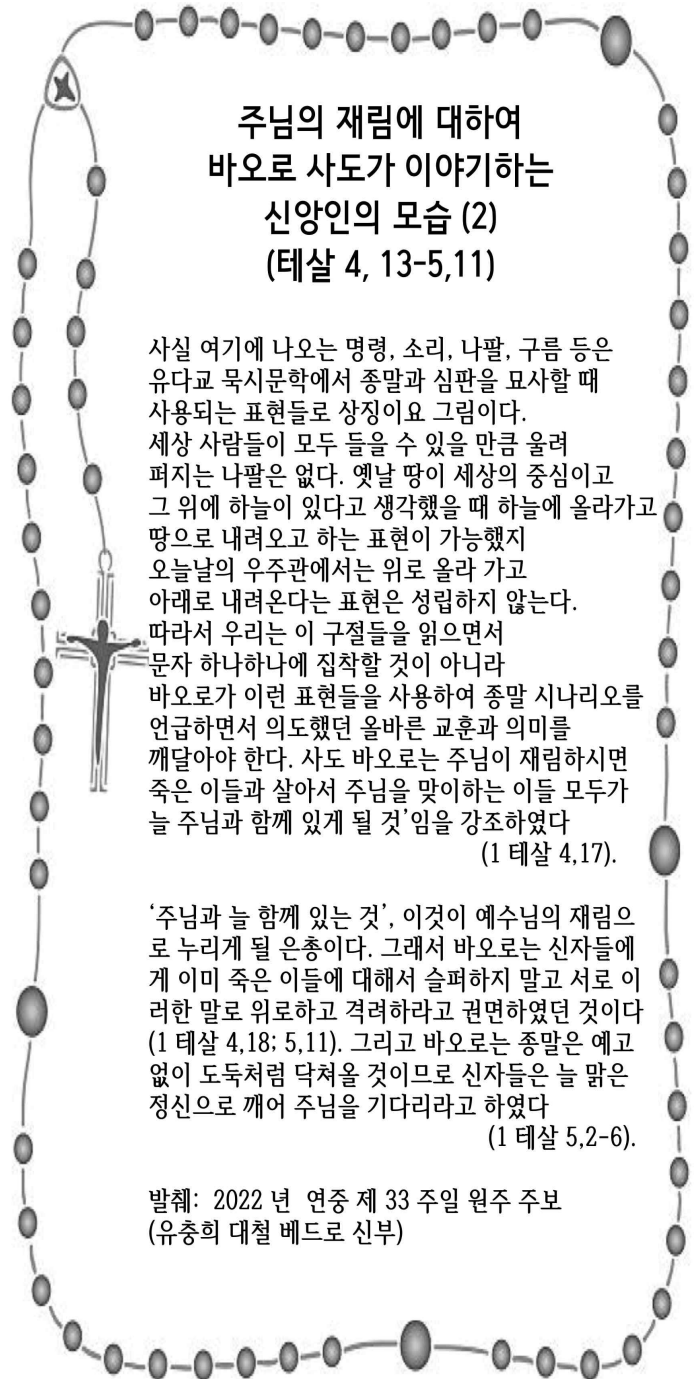
Toyota 2014년 23,000 마일리지

Toyota 2014년 25,000 마일리지

가격-\$15,000

Honda 2014년 24,000 마일리지

가격-\$15,000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모습 (2) (테살 4, 13-5,11)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명령, 소리, 나팔, 구름 등은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종말과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로 상징이요 그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울려 퍼지는 나팔은 없다. 옛날 땅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늘에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고 하는 표현이 가능했지 오늘날의 우주관에서는 위로 올라 가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종말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의도했던 올바른 교훈과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이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 모두가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 테살 4,17).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누리게 될 은총이다. 그래서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이미 죽은 이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1 테살 4,18; 5,11). 그리고 바오로는 종말은 예고 없이 도둑처럼 닥쳐올 것이므로 신자들은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1 테살 5,2-6).

발췌: 2022년 연중 제 33주일 원주 주보 (유충희 대철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성녀 김 루치아

성인명	김 루치아 (金 Lucy)
축 일	9월 20일
활동연도	1769-1839년

성녀 김 루치아(金, Lucia)는 서울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교우들 사이에 보통 ‘꼭추 루치아’로 통하였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우였다고 하니 집안도 어느 정도 천주교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장성한 뒤에는 교우가 아닌 어느 외교인에게 출가하게 되었다. 외교인 남편과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교우들과 상종하는 것을 막고, 교우의 본분을 지키는 것도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성녀 김 루치아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남편의 집을 나와 여러 교우들의 집으로 피해 다녔다. 교우들은 성녀 김 루치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었다. 그녀는 교우들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병자와 허약한 이를 돌보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자기의 열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그녀는 배운 것이 없어 세속적으로는 무지한 부인이었지만 천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 구하기에 열중하여 여러 외교인을 입교시키기도 하였다. 그녀가 지닌 신앙의 논리는 상식적이고 그 대답 또한 풍요로웠다. 한 번은 어떤 외교인 양반이 “지옥이 그렇게 좁다고 하니 어떻게 사람을 그리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며 빈정댔다. 그러자 성녀 김 루치아는 “당신의 그 작은 마음이 비록 만 권의 서

적을 품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좁다고 생각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요?”라고 반문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 양반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천주교인들은 무식한 사람도 모두 조리 있는 말을 한단 말이야!” 하며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성녀 김 루치아는 기해년(1839년) 4월 중순에 붙잡혀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옥중에서도 그녀는 병자를 도와주며,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애덕을 실천하였다. 포장이 다른 교우들의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하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마음이 없고 죽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할 따름이었다. 얼마 후 성녀 김 루치아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태형 30대를 맞았는데, 매가 그녀의 마른 몸에 닿자 마치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 형벌을 받은 후 옥에 들어오자마자 기진하여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함께 갇혀 있던 여 교우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그해 9월 어느 날 71살의 나이로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성녀 김 루치아의 축일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함께 경축하고 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12월24일까지 묵주기도 봉헌은
총 354,858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 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